

50년의 탑 위에 100년의 빛을 밝히다

50년을 가꿔온 창의융합의 산실에서
100년을 이룰 창의융합인재를 키웁니다.
여기, 한성대학교에서
세상의 미래가 시작됩니다.

소통으로 여는 혁신
한성 100년을 시작하다

100

50



한성 100년을 미리 보다

탄탄한 50년의 초석 위에 소통으로 혁신을 여는 새로운 100년의 리더, 한성대학교입니다.

한성의 50년은
혁신의 50년-
미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contents



08 Cover Story_History

한성, 상상으로 이어진 지도



10 Cover Story_Interview 1/2

- '한성'의 오랜 인연과 만나다
- 한성,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했고 앞으로도 같이 갈 동반자



14 Cover Story_Re-View

더 나은 한성을 위해
정성과 마음이 모아지다



18 리드하는 한성인

빛깔의 여운과 무늬의 역동성에
사로잡힌 영혼



20 상상하는 한성인 1/2

-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다
-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연구에 대한 자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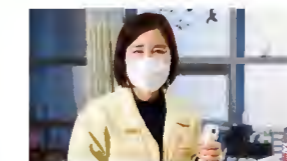
24 Hansung Space

한성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움트는 공간



28 Hansung Insight 1/2

- 최다 인용은 연구자로서 가지는 자부심이자 보람
-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디자이너의 품격



32 소통, 함께 나누다 1/2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다
- 코로나 시대,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



36 Zoom in Hansung

한성 마스크트,
'상상부기'의 친구들을 찾아라!



40 상상, 숲을 이루다

도전의 경험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연결되다



42 창의, 강이 되어 흐르다

모든 도전은 작은 기회에서 시작해
나를 성장시킨다

44 With Hansung 1/2

- '대한민국 소방관 김상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 한성대, 서울무용제 3관왕에 빛나는 이름

48 한성뉴스

54 발전기금

'한성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56 모집요강



50년의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100년의 출발선에 서다

우리 대학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진리(眞理), 지선(至善)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조적 인재양성과 학문 연구에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우리 동문들이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핵심중추로 자리매김하여 한성대학교의 대내외적 위상을 드높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성대학교는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2022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습을 살펴보자.



한성, 상상으로 이어진 지도

한성, 자랑스러운 49년을 돌아보다

1970

그 첫걸음, 1970년대

- 설립자 우촌 김의형 박사(1904~1983)
- 한성여자대학교 출범(1973년)
- 제1회 입학식(1973년 3월 5일)
- 한성여자대학 정문 준공(1976년)
- 제1회 졸업식(1977년 2월 25일)
- 한성대학으로 교명 변경, 남녀공학으로 전환(1978년)

제2의 탄생, 1980년대

- 종합관 준공(1981년 12월 29일)
- 신축 한성대학 건물, 現 한성여중고(1983년)
- 지선관, 진리관 준공(1983년)
- 학생복지관 준공(1984년 9월 5일)
- 우촌관 준공(1987년 8월 25일)
- 정문 준공(1988년)

1990

푸른 미래의 한성, 1990년대

- 대강당 준공(1991년)
- 종합대학교로 승격(1993년)
- 남문 준공(1994년)
- 전자정보관 개관(1996년 5월 10일)
- 우촌관 준공(1999년)

2000

서울의 센터 한성을 깨우다, 2000년대

-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 선정(2000년)
- 부동산대학원 신설, 교육대학원 신설(2000년)
- 미래관, 인성관 준공(2002년)
- 연구관 준공(2003년)
- 대학종합평가 '교육 및 사회봉사' 영역 최우수 선정(2004년)

- 학문분야평가 기계시스템공학과 우수대학 선정(2004년)
- 학문분야평가 무용학과 전국 최상위 선정(2006년)
- '노동부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 선정(2006년)
- '서울시 중소패션기업 지원사업' 운영기관 선정(2007년)
- 한국사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개최 '훌륭한 대학교' 선정(2007년)
-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컨설팅R&D센터 설립(2008년)
- 한국언론인연합회 선정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수상(2014년)
- '지역연고 산업육성사업' 2단계 사업(3년) 선정(2014년)
- 종합관 착공식(2014년 8월 28일)
-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 선정(2015년)
- 트랙제 학사구조로 전면 개편(2016년)
- 상상관 준공(2016년)
- 서울시 '창조경제 캠퍼스타운' 대상 선정(2017년)
- 대학청년고용센터 우수대학 선정(2017년)
-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 선정(2017년)
- IPP형 일학습병행제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2018년)
-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대학 선정(2018년)
- 서울시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대학 선정(2018년)
- 한국산업인력공단 K-Move 스쿨 사업 선정(2019년)
- IPP형 일학습병행제 최우수대학 선정(2019년)
- 2019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
- 상상빌리지 개관식(2019년 3월)
- 러닝커먼스 오픈식(2019년 10월)
- 제10대 이창원 총장 취임(2020년)
- 캠퍼스타운사업단, 서울시장 표창 수상(2020년)
- '제52회 한국도서관상' 단체부분 수상(2020년)



'한성'의 오랜 인연과 만나다

사회과학부
권혁제 교수

한성대가 오는 2022년이 되면 50주년을 맞는다. 지천명의 나이를 먹는 동안 수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학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런 만큼 38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한성'이라는 이름과 함께 해 온 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1983년부터 경제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한 권혁제 교수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라

권혁제 교수는 여러 권의 전문 서적을 출간한 경제학 박사이다. 평생을 학문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온 그는 원칙에 있어서는 한없이 엄격하지만, 시대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매의 눈'과 유연한 사고로 학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멘토이기도 하다.

그는 목이 마른 학생들에게 마실 물을 떠다 주기 보다는 스스로 우물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 교육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천편일률적인 학습방식을 경계하고 기존의 잘못된 방법을 답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배운 내용을 장차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대학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단계별로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를 넘어서면 또 다른 단계가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교육의 할 일이라는 뜻이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요즘 세대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라'는 가르침을 이미 90년대부터 강조해 왔으니 지금도 많은 제자들이 그를 멘토로 존경하는 이유일 터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생에게는 재미있게 다가가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논다는 표현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하며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제 교수는 그 재미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어서 '애들을 풀어 놓는 편'이라 말하고 웃어 보인다. 학생이 교수 눈치 보지 말고 또 교수도 학생을 강압하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스스로가 해답을 찾아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이다.

교육을 통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법을 배우길

“제가 처음 한성대 교수로 왔을 때가 1983년이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81학번이었습니다. 아마 그 학생들이 한성여대에서 한성대로 교명이 바뀌면서 처음 경제학과에 들어온 1회 졸업생들인 걸로 기억합니다.”

권혁제 교수에게 지금까지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 것은 '난로에 대한 추억'이다. 당시 한성대는 성냥으로 난로에 불을 피우던 시절이었다고.

권혁제 교수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 그 악조건 속에서도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다 말하고 웃어 보인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당시 젊은 교수의 눈에 대견스럽게 비춰졌을 터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한성대에 몸담으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학교를 바라보는 권혁제 교수의 소감은 어떨지 궁금했다.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 Let it be'입니다. 누구나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살다보면 좌표 수정을 하는 순간도 있고, 우회해야 할 때도 옵니다. 원칙에 충실하다면,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죠.”

권혁제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어진 궤도에서 학생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올바른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교육이 할 일을 깨닫는다.



한성,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같이 갈 동반자

환경관리팀
박혜란 팀장

2022년이면 한성대가 개교 50주년을 맞게 된다. 그간 우리 대학이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생, 교직원들이 한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첫 근무지인 교무처를 시작으로 총무처, 대학원, 비서실, 환경관리팀 등을 두루 거치는 동안 우리 대학과 20년이 훌쩍 넘는 인연을 맺어왔고,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라 말하는 박혜란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한성대에서 오랜 기간 교직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대학과의 첫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교직원으로서 출발은 1996년부터지만, 인연을 맺은 시기를 엄밀히 따지자면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한성인이예요. 미술학과 85학번으로 졸업하고, 96년 3월에 교무처 학적과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했으니 조금은 특별한 인연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당시 형편이여의치 않아 학비를 벌기 위해 교무처에서 근로학생도 하고 동사무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시절을 보내다 보니 캠퍼스 낭만은 저와는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특히 친구들과의 추억이 별로 없어서 돌이켜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Q
미술학과 재학시절 팀장님은 어떤 학생이셨나요?

제가 학생이던 시절만 해도 스승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 미술학과는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기로 유명했었기 때문에 교수님, 선배님만 보면 우러러 보았던 것 같아요. 입사 후 직원 입장에서 보니 교수님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



을 느껴서 좀 더 친밀해지고 편안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는 다른 대학 미대를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학교에는 한 학기만 다닐 생각이었는데 그 사이 정이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교수님들도 인간적이고 좋으셨는데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인도 교수님의 교육방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자를 대함에 있어서 당신 화법에 맞춰 강요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제 그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저 스스로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북돋워 주셨습니다.

Q
강산이 세 번 변하는 시간을 한성대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떤 변화들을 체감하시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현재 여, 중고 있는 건물 두 채만 사용했는데 그러다 교사 이전을 해서 진리관, 지선관이 생겼고 이후 우촌관, 상상관 등 건물이 차례차례 지어지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죠. 학교 외향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했지만, 그 사이 직원 수도 많이 늘었고 특히 제가 입사할 당시보다 더 실력 있는 직원들이 많아졌다는 점을 긍정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Q
박혜란 팀장에게 ‘한성’이란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제 인생의 반을 보낸 곳이고, 제가 끝까지 가져가야 할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 공개하는데 제 둘째 딸이 상상력인재학부에 입학했어요. 대를 이어 한성인이니 특별한 인연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간 학생, 교수님, 다른 부서의 직원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이 나중에 학교를 떠나더라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을 때 대학에서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30년 간 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여러 번의 고비가 생길 때마다 결국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또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잘 견뎌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더 나은 한성을 위해 정성과 마음이 모아지다

한성대학교 발전기금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처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 대학은 후학을 위한 선배들과 교수, 임직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한성을 위한 마음들이 모여져서, 건물이 세워지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되고 있다.
한성의 발전을 위한 빛과 소금, 발전기금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낙산의 성곽같이 한성의 내일에 든든한 힘이 되다

보내주신 사랑이 가치 있게 쓰입니다

한성대학교가 상상하는 교육의 미래를 실현하는 일에 보내주신 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인다. 한성대의 동문, 교직원 및 학부모, 개인, 기업체 등 한성대학교를 사랑하는 누구나 대학발전기금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발전기금 목적사업 지원비로 사용하게 된다.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 01 장학금 지원 사업**
 -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
 -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 장학금, 성적우수 장학금, 재난지원 장학금, 유학생 장학금
- 02 후생복지 시설의 확충 사업**
 -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장학금으로 사용
 - 학술정보관 조성, 상상파크 조성, 식당 조성
- 03 학술연구·활동지원 사업**
 - 강연과 교육, 연구 등 학술활동에 사용
 - 연구 장려금, 학술연구 활동비
- 04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 시설**
 - 연구기자재 구입 등 교육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용
 -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노후시설 리모델링

발전기금의 종류가 구분됩니다

우리 대학의 발전기금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발전기금>과 사용용도를 지정한 <지정발전기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 01 일반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 발전기금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성대학교에 위임
- 02 지정발전기금**
 - 기부자가 기금의 목적사업 범위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 장학기금, 학과 지정기금, 시설 확충 기금

마음에 마음으로 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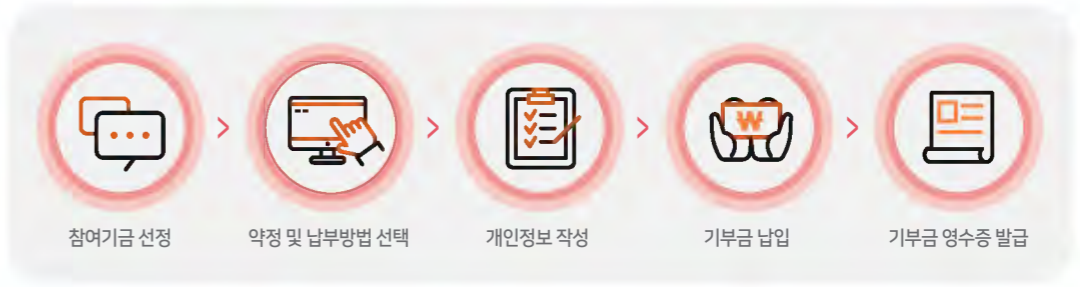
발전기금 조성에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분들께 특별한 혜택과 서비스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01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 성함 수록**
- 02 학교정기간행물 발송**
- 03 발전기금 예우기준에 따른 맞춤형 예우**

한성대학교 발전기금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성을 위한 정성과 마음의 현장을
사진으로 엮어보았다.



기부절차



STEP 1 참여기금 선정



장학금 지원사업
미래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합니다.



학술연구·활동지원 사업
강연과 교육, 연구 등 학술활동에 사용합니다.



후생복지시설의 확충사업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사용합니다.



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사업
연구기자재구입 등 교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STEP 2 약정 및 납부 방법 선택

기부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약정방법을 선택합니다.

| 온라인 약정 | 홈페이지 또는 QR 코드

| 오프라인 약정 | 이메일 give1004@hansung.ac.kr / 팩스 02-760-4274 / 방문 대외협력팀(우촌관 502호)

STEP 3 참여신청(약정서) 작성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되며, 세제혜택 및 기부자예우를 위해 사용됩니다.

개인정보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의3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8조, 법인세법 제 112조의2
---------------	--

STEP 4 기부금 납입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관리되며, 세제혜택 및 기부자예우를 위해 사용됩니다.

- 무통장입금 : 예금주 한성대학교 기업은행 114-1004-1004
- 자동이체(CMS) : 은행계좌 및 이체일을 지정하시면 직접 납부하실 필요없이 자동으로 기부금이 납입됩니다.
- 교직원 급여 공제 : 한성대학교 교직원이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기부금을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STEP 5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한성대학교 발전기금에 기부하신 모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문의 | 02)760-4255

빛깔의 여운과 무늬의 역동성에 사로잡힌 영혼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이기향 교수

색에 대한 갈증, 이에 대한 무한한 탐구. 이기향 교수는 색에 대해 끊임없이 갈구했고, 결국 색을 찾아낸 것이 문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무대에 올린 패션·무용 퍼포먼스에서 역시 ‘Colors & Patterns’을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아낸 회고전 ‘빛깔*무늬-빛깔의 여운 무늬의 역동’을 개최한 이기향 교수를 만났다.



불교와의 인연으로 작품세계가 완성되다

이기향 교수는 35년 남짓한 오랜 시간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또한 그녀만의 고유한 세계관으로 다양한 작품세계를 선사해 온 예술가이기도 하다. 1996년에 열린 개인전 ‘피안을 향하여’부터 2019년 ‘보주, 춤추다 II’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답을 찾는, 본성을 밝히는 작업에 매진해 왔다.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지만 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조각에는 색깔이 없었기 때문이죠. 197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패션 공부를 시작하면서 색에 대한 갈망이 풀어지는 듯 했지만, 7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자존감이 거의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나란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껍데기에 불과한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돌파구를 찾은 것이 불교였다. 이기향 교수는 자기에 대한 아상이 하나도 없는 부처의 모습에 감동받았고 그때부터 불교가 만들어낸 미술, 조각, 공예 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불교에 심취하면서 제가 그토록 원하던 색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지 않을 수 없었죠. 불화나 동양화의 채색화는 하나의 여백도 없이 색을 다 메웁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놀라운 환희였어요.”

여백한 점 없이 화면을 가득 메운 색의 바다를 만나고 제 세상을 만난 듯 기뻐했다는 이기향 교수는 색을 따라 함께 울동하는 무늬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젊은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어른’이 되고 싶다

이기향 교수는 오랫동안 단청무늬에 천착해 왔다. 현재도 그녀는 단청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더한 아트웨어 쇼를 기획하고, 단청 무늬를 불교에서 말하는 보주의 생명력으로 재해석하는 개념적 패션 퍼포먼스를 실험 중에 있다.

“단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강우방 학자를 만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청문양이 인간 본성의 발현을 상징하고 있으며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얻은 깨달음은 이번에 선보인 이기향 교수의 회고전 작품에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빛깔*무늬-빛깔의 여운 무늬의 역동’ 무대에는 젊은 시절 정체성의 혼란으로 방황하던 시절을 시작으로, 불교적 진리를 기쁨을 그려냈고, 또 이를 둥근 보주에 조형화하는 가운데 중생을 공경하고 실천을 통한 회향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제 작품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표현하려고 했던 저의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다큐멘터리가 7분, 안무와 패션작품어 콜라보를 이룬 퍼포먼스가 40분 정도 진행됐는데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공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로 부터 완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아서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협업을 통한 작업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을 일 년 앞둔 지금, 이기향 교수는 젊은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인생 경험을 더 많이 해본 선배로서 사회 전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하기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디자인을 하고 예술을 했던 만큼 좀더 쉽고 재미있고 아름답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분발해야겠다는 그녀에게서 참 어른의 모습이 보인다.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하다

창업R&D센터
홍성재 교수

지난 11월 22일에 열린 '제7회 기업가 정신교육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홍성재 교수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우수한 실습·협업 중심의 기업가정신교육 운영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창업R&D센터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사업에 대한 분석 및 새로운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홍성재 교수를 만났다.



어린 예비 창업가의 눈높이를 키우는 맞춤형 창업교육 가이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예전과 달리 창업을 플랫폼 서비스로 인식하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주목해 홍성재 교수는 앱 서비스 제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번 경진대회에 지원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이라는 큰 영예를 안았다. 홍성재 교수 또한 역시 대학 졸업 후 소셜 벤처를 7년간 운영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젊은 세대가 필요로 하는 창업에 대한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홍 교수는 이번 경진대회에 학생들이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앱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이 프로그램은 창업체험교육 플랫폼(yeep.kr)을 통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는데 교재 안에 학생들이 볼 수 있는 PPT 교재도 있고, 일반 선생님들이 가르칠 수 있는 교사용 PPT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초·중·고교생의 학년에 따라 난이도가 구분되며 교안 및 영상자료를 통해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홍성재 교수는 평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과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육부와 함께 이번 앱 개발에 착수했고, 일선 교사들이 창업가는 아닌 만큼 보다 창업과 관련한 상세한 예시가 들어간 디테일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의 이해를 돕고자 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차 기업가로 성장할 어린 예비 창업가들의 눈높이를 키워주는 맞춤형 창업교육 가이드로서 역할을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창업은 생존을 위한 유용한 도구

홍성재 교수는 창업R&D센터에서 공공데이터기반 소셜 벤처 창업 및 스타트업아이템 사업화 등 다양한 창업 교과목을 개발, 강의하고 있다. 그는 우리 대학이 다른 대학에 비해 매년 배출하는 창업기업과 학생 수가 많은 편임에 주목하고, 이는 오늘날 대학이 가지는 강점이라 자부한다.

“코로나19로 실습과 협업이 중요한 창업교육 수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온,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을 적극 도입해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기업가정신교육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현재 빛의 속도로 모든 지식과 기술,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예기치 못한 여러 변수들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다. 홍성재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다'를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그가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기도 하다.

“저는 창업을 생존에 필요한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업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내 일을 내 스스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사회가 급변할수록 이 취업과 창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고집할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미리 창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해본다면 앞으로 주어질 선택권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연구에 대한 자부심

전자정보공학과
김광섭 강사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대한원격탐사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 환경공간정보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리 대학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고해상 위성인 KOMPTSAT-3A의 대기보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좋은 성과를 거둔 정보시스템공학과 김광섭 강사를 만났다.



원격탐사를 통한 정확한 환경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번 공모전은 환경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어떻게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만들 것인지, 또는 만들어진 데이터를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환경공간정보는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 정보를 환경과 관련된 정보와 접목한 것을 뜻한다. 가령, 드론을 활용해 전국 곳곳의 지표 온도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들면 새로운 환경공간정보를 구축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인공위성을 활용해 숲, 초지, 아스팔트 도로 등 지표면의 공통적 속성을 지도로 구현하면 환경공간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김광섭 강사가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구 주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그의 연구 주제인 ‘절대 대기 보정에 의한 KOMPTSAT-3A 영상지표 반사도 적용 도시환경 정밀 식생지수 산출도 구축방안’은 국내 위성정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가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고 있고, 이에 여러 관련 기관에서 위성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을 지구 밖에서 찍다 보니 대기층이나 전리층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환경은 식생지수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대기 영향을 받게 되면 제대로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최근 대기보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아서 잘 활용만 한다면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적인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김광섭 강사는 원격탐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환경변화, 도시변화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 쓰임새가 있는 연구에 집중

현재 정보시스템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광섭 강사는 우리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거친 ‘한성맨’이다. 강단에 선 선생님이자 연구자로서 공모전 최우수상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연구를 정리하는 계기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상 여부를 떠나 이제까지 집중해 온 연구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연구가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김광섭 강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보탬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하는 바람이 큰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한다.

“코로나 여파로 학생들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특히 20학번 신입생들을 생각하면 선배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낯선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든 생각은 온,오프라인을 상호 보완하는 새로운 커리큘럼이 될 수 있겠다, 이 또한 새로운 시대로 변화하는 과도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잘 해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들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움트는 공간

창의융합 교육 공간 <상상파크 플러스> OPEN!

HSU HANSUNG UNIVERSITY | 상상파크 플러스
Dream & Innovation Park

코로나19의 여파로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편안하게 머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오픈되었다. 2020년 11월 18일, 새롭게 바뀐 학술정보관 창의열람실·집중열람실이 그 중 하나다. 미래관 3층에 위치한 창의열람실은 열린 공간에서 대화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율좌석제이다. 4층에 마련된 집중열람실은 개인 집중 학습 공간으로 좌석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앞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우리 대학이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상상파크 플러스>를 지난 11월 2일 오픈했다.

2019년 11월에 개관한 <상상파크>는 기자재를 활용하는 창의융합 실습공간의 역할이라면 <상상파크 플러스>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주도하에 공간 자체를 창의적으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상상파크>는 3D 프린터, VR/AR 장비 등 다양한 첨단기자재를 활용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출력, VR/AR 실습, 콘텐츠 제작 등 직접 실습이 가능한 공간이었다. 반면 이번에 새롭게 개관한 <상상파크 플러스>는 기존 <상상파크>와는 다르게 다양한 창의융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커톤, 팀 프로젝트, 소모임, 발표 및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창의융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액티브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한성대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인 창의융합 교육 공간 <상상파크 플러스>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팀프로젝트를 위한 공간

<상상파크 플러스>는 공학관 A동에 위치하고 있다. 팀프로젝트, 소모임, 전시, 발표,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은 공간과 여러 모양의 책상, 다양한 색상이 가득한 이곳에서 창의융합적인 아이디어를 맘껏 발현해보자. 과제가 힘들 때는 짐볼을 이용해서 쉬 수도 있다.

생각을 디자인하는 공간

디자인씽킹 재료 코너에는 디자인씽킹에 필요한 펜, 포스트잇, 가위, 풀, 제본기, 코팅기 등의 다양한 재료들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디자인씽킹 진열대에는 지금은 3D 출력물이 전시되어 있지만 디자인씽킹 결과물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다.



공간의 재구성

같은 공간이 달라진다? 필요에 따라 가구를 이동해서 과제물 구동 테스트, 해커톤, 세미나, 발표, 전시 등 사용 목적에 맞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공간을 재배치하고 구성할 수 있기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움트는 기반이 될 것이다.

소모임 공간

소모임 공간은 총 6개의 방으로 되어 있다. 각 소모임실에는 이동식 빔프로젝터와 대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전면이 화이트보드라서 보드마카를 이용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동하는 타공판에 전시를 할 수 있다.



AI·빅데이터 실습실

AI·빅데이터 실습실에는 최신형 데스크톱 이랑 노트북을 사용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이나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습실 벽은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





최다 인용은 연구자로서 가지는 자부심이자 보람

2020년 한국지식경영학회
학술상 수상,
권상집 교수

연구는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탐구

권상집 교수가 지난 2016년 3월에 발간한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의 지식공유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최근 5년 간 한국지식경영학회에서 발간된 논문 중에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다. 학술논문 인용은 또 다른 연구자가 논문을 준비할 때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만큼 타 대학의 교수들과 석, 박사들에게 인용된 횟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선행연구가 잘 이루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권상집 교수는 자신의 논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 자체로 큰 보람이라 말한다.

“그간 학계에서는 학술논문상은 있었지만, 해당 연구자의 논문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인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등한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다인용 논문상이 올해 처음 제정되었는데 운 좋게 초대 수상자로 선정돼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입니다.” 권 교수의 논문이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될 수 있었던 배경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 덕분이다. ‘서번트 리더십이 구성원의 성과를 높인다고 하는데 과연 기업현장에서도 그러할까?’에 대한 탐구를 위해 권상집 교수는 국내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거쳤고, 그 결과 서번트 리더십이 실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기업현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연구였지만, 4년 전만 해도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않아 좀 더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겸손해한다.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기업경영트랙 권상집 교수가 2020년 한국지식경영학회 학술상 시상식에서 최다인용 논문상 (Most Cited Paper Award)을 수상했다. 이 상은 연구자의 우수 역량을 가늠하기 위한 중요지표인 논문의 인용도를 평가의 척도로 삼은 만큼 우리 대학 권상집 교수가 첫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좋은 교육은 좋은 연구로부터

권상집 교수는 지난 5년 간 SSCI/SCIE 등 해외 우수학술지에 30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국내외에서 진행된 주요 학회 학술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한국경영학회에서 진행된 최우수 학술심사위원회상을, 2020년에는 국내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경영학회 우수경영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 9월부터 사회과학부 기업경영트랙에서 기업가정신과 거시조직론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임하자마자 받은 상이자 ‘한성대학교’라는 타이틀로 받은 첫 상이라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수상 여부를 떠나 인문사회 분야에서 인용이 많이 된 논문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을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초 대학 본연의 임무인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권상집 교수는 신입교원에 대한 학교 차원의 배려와 지원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웃는다.

학생들 사이에서 ‘교수님의 강의 슬라이더가 매년 똑같다, 교재 개정판이라 해도 커버만 바뀌었지 내용은 같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하는 권상집 교수는 좋은 교육자는 좋은 연구를 기반으로 나오는 만큼 교육과 연구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은 디자이너의 품격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 03학번
메이크메이크 신봉건 대표

다양한 시도와 제안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다

DDP디자인페어는 서울의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디자인 전문 비즈니스 런칭쇼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섬유, 가구, 조명, 목재,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국내외 판로개척 순환 사이클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참여하게 된 터라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점차 몰입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콜라보 작업을 했던 조명은 늘 도전해 보고 싶은 제품 중 하나였지만 이미 여러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왔던 분야여서 더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특히 함께 협업을 진행한 황덕기술단이 세계 유수의 조명을 수입, 제작하는 큰 회사인데다 경관 조명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업체여서 고심을 더 많이 했다는 신봉건 동문. 하지만 걱정과 달리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역할을 믿어주고 전적으로 지지해주었고, 그 덕분에 다양한 시도와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웃는다.

협업을 통한 제품개발은 디자이너의 디자인 가능성이 소상공인의 제조능력에 의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작업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콜라보 제품은 내년 봄, 국내는 물론 유럽시장에 B2C로 판매될 계획이라고 하니 신봉건 동문에게 제품 디자이너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소중한 모멘텀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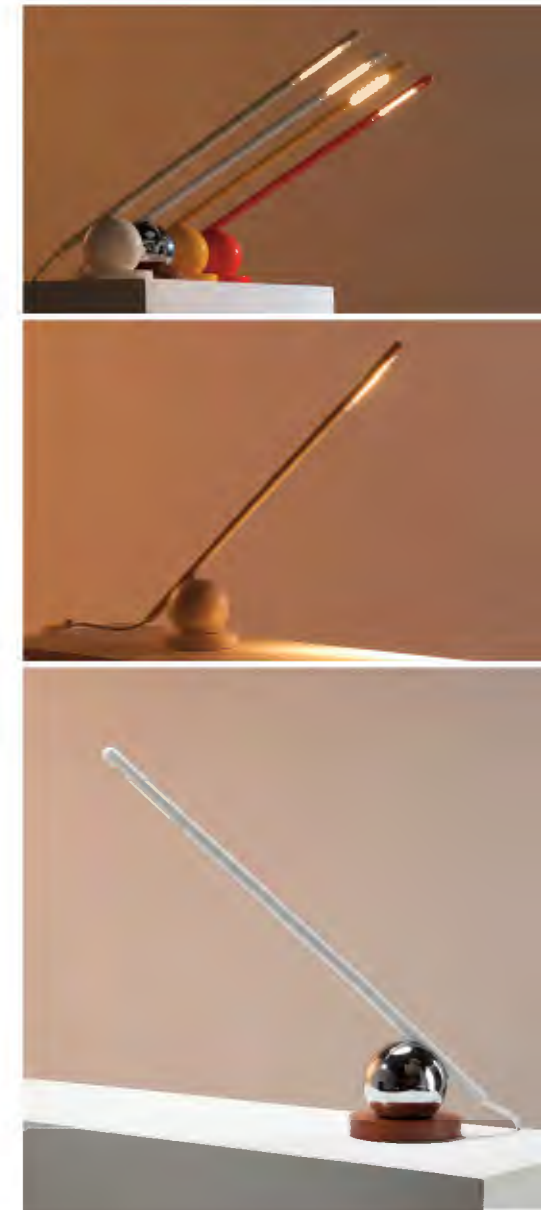
소상공인과 청년 디자이너의 협업 프로젝트인 ‘제2회 DDP디자인페어’에 참여한 우리 대학 선배님의 작품이 2020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 03학번 신봉건 동문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디자인전문회사 ‘메이크메이크’의 대표이자 제품 디자이너로서 아름답고 기능적인 제품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신봉건 동문을 만났다.

상상력은 반드시 실행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

신봉건 대표가 운영하는 디자인회사 메이크메이크는 조금은 독특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반적인 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나의 축으로 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생활용품들에 대한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두 가지 영역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 어려서부터 레고나 프라모델 조립, 건축 모델 만드는 일에 남다른 관심과 재능이 있었던 신봉건 동문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콘텐츠학부에서 제품디자인을 전공했고,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에 7년간 몸담으면서 디자이너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팀원들을 꾸려 디자인회사를 차렸고 현재 작지만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나가고 있다.

신봉건 동문이 가지는 디자인 모토는 ‘make better life, by make better product’. 자신이 만드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제품들로 세상이 조금씩 채워지고, 그로 인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편리해져 보다 나아지기를 꿈꾼다.

“학교 다닐 때 김홍배 교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신 스승님이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디자이너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창의적인 상상력도 실행이 수반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상상력은 무척 중요한 요소지만, 상상만 하게 되면 망상에 불과할 수 있어요. 반드시 실행이 가능해야 상상력이 본래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다

건강관리실
권후관 실장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신종 감염병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이 경험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학은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 1월, 학교 차원에서 대책상황실을 꾸리고 교직원과 건강관리실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책상황실과 건강관리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원동력

우리 대학은 코로나19 확진 직후 정문과 중문 이외의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고, 2학기 들어서는 건물별 발열체크 및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시작했다. 또한 매주 화요일마다 전체 건물에 방역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진 2020년, 우리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가장 바빴던 곳을 꼽으라면 단연 건강관리실을 들 수 있다. 권후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하루에도 많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건강관리실을 방문하거나 상담전화를 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곳이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다시피 한 현재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평소 건강관리실을 찾는 인원들은 감기나 간단한 의약품을 찾는 정도였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의 비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죠.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책상황실을 차리고 2월 13일 코로나19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각 부서에 협력을 요청하고 업무분장을 하는 등 신속하게 대비했던 것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권후관 실장은 무서운 속도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건강관리실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따르며 총장님 이하 교직원, 학생들이 함께 힘을 모아준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무엇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선을 다해 지켜온 만큼 튼튼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 대유행 시대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대학은 이미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무료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던 만큼 매년 마스크를 비축해 둔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건강관리실은 감염병 이전부터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고, 이를 위해 몇 만 개 분량을 항시 비축해 두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국가적으로 마스크가 동이 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한 달 정도를 버틸 수 있었어요.”

권후관 실장은 돌이켜 생각하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1차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에 이어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선포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후관 실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학교 방역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마스크 쓰기를 반드시 준수하고, 식사 중에도 가급적 대화를 삼가며, 꼼꼼한 손 씻기와 소독제 사용 등 개인방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한다. 지금은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모두의 일치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임을 명심하자.





코로나 시대, 한결같은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최선

컴퓨터공학부, 15학번
35대 총학생회장 박민수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강의실에서 학우들과 수업을 듣고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즐겁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경험할 일들을 할 수 없게 돼버린 2020년. 총학생회 박민수 회장은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어려울수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말한다.

보람과 힘들이가 교차한 2020년

대학 캠퍼스가 이처럼 고요한 날이 있었을까?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비롯해 대부분의 대학 행사들이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학과 모임이나 동아리 모임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새터, OT, 축제 등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비상 시국에 총학생회가 나서서 학교와 소통하며 학우들의 피드백을 전달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박민수 회장은 학교와 학생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간혹 좋지 않은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힘든 가운데 뿌듯한 순간이 더 많았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대학과 학생 간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한성희망장학금’을 지급받은 일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1학기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서 대학가는 등록금 반환이라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 학교는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함께 코로나19 관련 논의를 하는 협의기구를 운영해 왔는데, 이 기구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 20만 원을 전교생들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다.

“학우들이 느끼기에 만족할 만한 액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학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런 성과여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선제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점도 의의가 있겠지요.”

학우들의 편에서 행정을 보는 일이 총학생회의 역할이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에 박민수 회장은 보람과 힘들이가 교차하는 한 해로 2020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한다.

비대면 문화의 기반을 다지는 한 해로 기억되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향후 몇 년 간은 오프라인 수업을 기대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대학가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축제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학우들의 호응을 얻고 큰 힘을 받았다는 박민수 회장은 2020년이 힘든 한 해였지만, 비대면 문화의 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감염병이 종식되는 날은 요원하다는 전망도 있고 보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내는 법을 깨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일 년 간 경험을 치렀으니 이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울러 박민수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병 방역은 학교에만 의존할 부분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들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방역에 힘쓰는 결과,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심각한 코로나 감염 사례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일 것이다.



한성 마스크트, '상상부기'의 친구들을 찾아라!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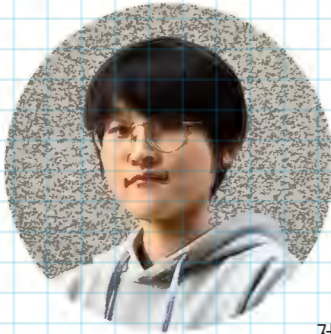
한성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한성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상상부기', 이제 한성의 대내외 행사에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되었다.

한성의 마스크트 '상상부기'와 어울리는 친구들을 찾는 공모전이 지난 10월 말에 개최되었다.

한성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 큰 관심이 이어졌고, 드디어 '상상부기'의 특별한 친구들이 발표되었다.



대상



한성냥이, 상찌, 꼬꼬&꾸꾸

글. 최현아 (브랜드패키지디자인트랙+서양화트랙, 17학번)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 개최 소식을 듣고,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인 상상부기의 친구들을 가능하면 제 손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작한 캐릭터는 <상상부기&친구들-한성냥이,상찌,꼬꼬&꾸꾸>입니다. 먼저 '한성냥이'는 솔방울 가방과 소나무 가지를 통해 무엇으로든 변신할 수 있는 고양이입니다. 솔방울 가방은 우리 학교의 나무인 삼학송을 상징하며, 변신이라는 소재로 원하는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는 한성인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상찌'는 상상부기의 상상력이 우연히 만들어낸 작고 귀여운 상추 다람쥐로, 상상부기가 상추를 좋아한다는 설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꼬꼬와 꾸꾸'는 한성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학교 닭입니다. 낙산공원에 살면서 아침이면 상상빌리지에 사는 기숙사 학생들에게 들릴 정도로 크게 울음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영감을 받아 꼬꼬와 꾸꾸에게 각각 아침마다 공연을 여는 싱어송 라이터와 댄싱 머신이라는 캐릭터를 부여했습니다. 각각의 캐릭터를 구상하면서 어떻게 서로 어울리며 만화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스스로의 작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새로운 작업을 하게 되면 주변에 많이 보여주고 의견을 물어보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스케치를 보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피드백 해준 덕분에 효과적으로 디자인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를 대표할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만큼 그냥 귀엽기만 한 캐릭터가 아닌 학교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녹이고자 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지난해 휴학하면서 마음을 다잡기 위해 적은 메모가 붙어있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안 해서 그래-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못 하는 거야!" 종종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실제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지금 안 하고 있을 뿐 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완성도 없고, 어떤 상상도 현실에서 실현하지 않는다면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맙니다. 이번 공모전 수상을 통해 만약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다면 수상도 없었을 것이라는 것, 일단 부딪혀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휴학을 마치고 2021년도 1학기에 4학년으로 복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졸업 포트폴리오와 졸업 작품을 잘 준비해 문제없이 졸업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안 해본 것들을 새로 도전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며, 언젠가 제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는 꼭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수상



송송 & 청운

글. 김플잎 (제품·서비스디자인트랙+ 브랜드·패키지트랙, 19학번)

저는 우리 학교의 방역 스티커를 색깔별로 모아 노트북에 붙이는 일이 나름의 취미가 되었습니다. 방역 스티커 안에 그려진 상상부기가 귀여울 뿐만 아니라, 색깔도 다양해서 모으는 재미가 나름 있었던 탓입니다. 그러던 도중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이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가 상상부기 스티커를 좋아한 것처럼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에 소나무 요정인 '송송'이들과 낙산에 사는 구름 '청운'을 출품하였습니다. 특히 '송송'이들은 저희 학교의 상징인 '삼학송'을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출품한 송송이들은 총 3개의 디자인으로, 각각 '송나무', '송이피', '송방울'이란 이름도 지어주었습니다.

바쁜 학기 중에 도전한 공모전인 까닭에, 이번 공모전은 제게 있어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라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보는 기회 그 자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어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값진 경험이었으며, '여기서 조금 더 힘내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로의 방향을 고민하는 시기였는데, 이번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으로 제 꿈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 MD와 관련된 직무 경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수상



순딩 양이, 희망 라미, 허그 코코, 모험 앵무

글. 김다현 (웹디자인과)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을 전공했고, 지금은 한 회사의 웹디자인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여느 졸업생들과 다를 바 없이 약 2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 어느 순간 사회생활에 치여 녹초가 된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현실의 무게에 눌러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공모전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아, 누군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살아 움직이는데 지금 나는 여기에 멈춰 서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도전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상상부기 프렌즈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출품한 제 작품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의 의미성, 두 번째는 한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스러움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매력과 개성을 지닌 4명의 친구들이 탄생했습니다. 상냥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순딩 양이', 엉뚱하지만 사랑스러운 귀염둥이 '희망 라미',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정 많은 '허그 코코', 용감하고 씩씩한 개구쟁이 '모험 앵무'입니다.

저는 이번 과정을 통해 도전의 즐거움에 눈을 뜨게 되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앞으로의 가장 큰 계획은 '재도전'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목표를 세워야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하여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내가 되는 것이 제 꿈이자 비전입니다.



도전의 경험이 용기와 자신감으로 연결되다

VMD 국제 공모전 우수상 수상



글. 유태림(인테리어 코디네이션 트랙+VMD · 전시디자인 트랙, 17학번)



저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변경이나 조절이 가능한 시스템 가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제품 디자인을 하고자 한성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여러 트랙을 수강하며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인테리어 디자인학과로 진학해 공간에 대해 배우고 사람과 공간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브랜드 정체성을 공간에 표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매력을 느껴 VMD 영역으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 최선을 다해 작업하지만 늘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지난 학기에는 더욱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기를 마무리 하려던 차에 교수님께서 VMD 국제 공모전을 추천해 주셨고 한 학기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자 공모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열리는 Shop! Student Awards Contest 2020 공모전은 8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협회 Shop! International Retail Marketing Advertising Association에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디스플레이 및 광고 분야의 국제 학생 대회로, 마케팅 디스플레이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홍보하고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모전입니다.

저는 공모전 지원 자체가 처음이었는데 국제 공모전이다 보니 언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공모전 예선 통과 후에는 실시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예선 합격자 10명과 자신의 예선 통과 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투른 영어실력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번역기 사용과 친절한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잘 헤쳐나간 것 같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해서 처음으로 외국어로 대화하며 작품을 설명하고 실시간 온라인 회의 등 생소하고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예선 통과 후 지정받은 멘토와 멘토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멘토님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제 작품을 보고 직접 제게 이메일이나 채팅 어플을 통해 의견을 제안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웨딩의 이미지가 중국의 웨딩 이미지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의 현대

와 전통 결혼식 문화에 대해 다시 정보를 찾아 모으면서 타깃 분석과 마케팅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고 도전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을 보고 제 작품의 부족한 면만 보여서 수상에 대해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초기 예선 통과 후 새롭게 디자인한 작품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기쁩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공모전에 나갈 기회는 많았지만 늘 자신이 없어 참가하지 못했는데 도전이라도 한번 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모

전은 저에게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었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그 후 다른 공모전에도 참가해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제는 늘 도전의 기회를 놓치던 제가 '한 번 해 볼까?'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든 도전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구 디자인, 가족 공예, 오피스 컨설턴트, VMD 등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도전해 보지 못한 것들을 해 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각적인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모든 도전은 작은 기회에서 시작해 나를 성장시킨다

제15회 한성인 글쓰기 대회 최우수상 수상



글. 최승엽(역사문화학부, 14학번)

안녕하세요? 저는 21년 2월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비졸업생입니다.

제가 이번 글쓰기 대회에 지원한 계기는 지난 4년 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제 나름의 결과물을 내고 싶어서였습니다. 모두들 그렇듯이 저도 사고와 표현 수업을 통해 1학년 때 처음 전문적인 글쓰기를 접한 뒤로 전공, 교양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수업에서 작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년에 이르러 나의 글쓰기 실력은 얼마나 향상됐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저의 제출 작품은 '정보화 사회에서 교양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양이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가져다주는 지에 대해 이야기한 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엔 상업광고나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거리에서도, 온라인의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우리는 항상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보과다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교양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교양의 역할을 개인의 주체성, 관찰력, 다양성의 함양으로 정의했습니다. 주체성은 나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어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력은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인식할 때, 그것이 강조하는 일면만이 아니라 숨기고자 하는 이면까지 꿰뚫어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은 다양한 인종, 사고,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교양이 제공해 주는 이 3가지 요소를 통해 개인이 현대사회의 파도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쓰기 대회는 평소와 다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글쓰기 대회가 진행될 지 걱정이 앞섰지만, 학교 측의 세심한 고려와 준비를 통해 대회가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PDF로 작문 주제가 동시에 공개된 점, 그리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글을 쓸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을 제공받았다는 점입니다. 시상식 때 많은 학생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 대회를 통해 오히려 온라인만의 장점을 찾아 이전보다 좋은 작품들이 나온 것 같다는 이야기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 수상을 통해 저는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대회 참가의 계기가 4년간의 학교생활에 대한 결산이라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성취감도 대단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시험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공지사항을 매일 확인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대회와 같은 기회가 있으면 곧바로 참가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결과가 좋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맛있는 음식이 꼭 달콤한 설탕과 같지는 않은 것처럼 시도 자체가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일본 정부 장학금에 선발되어 2021년 9월부터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간혹 풍자적으로 고생길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대학원생이 되는 것이죠. 저의 꿈은 교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큰 뜻과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활동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진로를 따라 먼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학문을 통해 세상에 이바지하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길 말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께 도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도전은 우연찮은 작은 기회로 시작되고, 이것이 점점 계단처럼 올라가 큰 성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끝이 난다고 해도 모든 도전과 행동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모든 결과는 거름이 되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집에만 있어 우울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혹은 좀 더 대담한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소방관 김상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대학원 행정학과
김상철 동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오로지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사람들. 하지만, 소방관을 바라보는 시각은 ‘존경받는 직업 1위, 혹은 저평가된 직업 1위’라는 상반된 평가가 뒤따른다.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상철 동문이 소방에 대한 인식과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방관,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

소방관은 각종 사건, 사고 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슈퍼맨들이다. 고귀한 생명을 구해내는 보람도 크지만, 희생이 뒤따르기에 애환 또한 큰 직업군이기도 하다. 김상철 동문은 현직 소방관으로 30년 동안 재직하면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행정업무 등 다양한 현장경험으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아울러 11년 동안 소방관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박사의 꿈을 이뤄낸 열혈 만학도이기도 하다.

“제가 한성대와 인연을 맺은 것이 2016년 일반대학원 행정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뼈저리게 체감하는 것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었어요. 소방관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재난현장으로 뛰어들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만큼 희생도 크죠. 하지만 그간 일한 만큼, 헌신한 만큼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공수특전단 5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1992년, 첫 근무지였던 종로소방서 119구조대에서 최초로 출동나간 곳이 한강대교 자살 건이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긴장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현장을 무사히 수습하면서 김상철 동문은 소방관이라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만큼 최고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119구조대 근무 당시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많은 대형 참사를 직접 경험했고, 그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6명의 소방관이 희생된 홍제동 빌라 방화사건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있어요.”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동료들을 화마로 한꺼번에 잃은 슬픔이 아직까지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김상철 동문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길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소방관들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김상철 동문은 개선을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문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늦깎이 공부를 시작했다. 대학에 편입하고 상담심리학 1년 과정을 수료했으며, 2년의 석사 과정과 3년의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통해 무사히 정책학 박사학위를 얻을 수 있었다. 이밖에도 <나는 대한민국 소방관 김상철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한 것을 비롯해 다양한 학문과 연구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학업이든 취업준비 등 뭐 하나 녹록한 여건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로도 어떤 위로도 되지 않겠지만, 자기가 잘 하는 일에 투자를 하라는 말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하면 분명 좋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반드시 어떤 계기를 통한 전환점이 찾아오기 마련이라 말하는 김상철 동문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다 같이 힘을 내는 2021년 새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아울러 그가 소망하는 것처럼 소방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겨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한성대, 서울무용제 3관왕에 빛나는 이름

무용학과
정석순 교수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한성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 우리 대학 무용학과 정석순 교수와 일반대학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된 '프로젝트S팀'이 '제41회 서울무용제'에서 경연부문 대상, 안무상, 최고무용수상을 수상하며 3관왕의 영예를 안은 것이다. 정석순 교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마음으로 작품 준비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함께 애써준 팀원들과 스텝들에게 그 영광을 돌렸다.

권위 있는 무용제에서 거둔 3관왕의 영예

41년의 역사를 지닌 서울무용제는 우리나라 창작무용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유서 깊은 행사다. 국내 무용인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무용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연례행사에서 우리 대학이 3관왕을 차지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번 무용제에 출전한 ‘챌린저스 2.0’은 제가 안무를 직접 제작하고 참여한 작품입니다. 현재 자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지만, 용기를 내 자기 삶에 맞서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획하게 된 거죠.”

작품 구상만 2년이 걸렸다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정석순 교수와 프로젝트S팀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 시국이라 팀원 전체가 모여 연습을 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그래서 단지 무탈하게 공연만 마칠 수 있기를 바랐다고 한다.

“서울무용제가 권위 있는 대회인 만큼 경연무대에 올라오는 작품들의 규모가 크고 에너지 또한 엄청납니다. 여기에 무대 세트, 미술, 조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투입되다 보니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된 거죠.” 경연 5일 전까지 세트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정석순 교수는 처음 의도대로 무용수의 움직임에 포커스를 맞춘 순수무대로 승부를 보자는 마음으로 준비한 세트를 모두 들어내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결국 그의 판단은 대회 3관왕의 영예를 가져다 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된 마음으로

“불필요한 무대 장치는 빼고 가장 순수하게 무용수의 움직임 하나로 승부를 보고자 했던 것이 좋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공연이 다 취소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했던 터라 이번 대회 준비를 하면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수상 여부를 떠나 큰 감동을 받았던 무대였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다, 학생들이 정말 잘 하더라’는 관객들의 평가가 무엇보다 기뻐했다는 정석순 교수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라 말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교수가 된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한성대 무용학과 홀에서 보낸 정석순 교수. 만약 ‘한성’이라는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 준비를 위해 철저한 방역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해준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HANSUNG NEWS



2차 '코로나19-긴급경제곤란지원 장학금' 추가 지급

본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경제적 곤란 학생 127명을 선발하여, 2차 「긴급경제곤란지원 장학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총 127억 원을 지급했다. 이번 2차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같이 소통하고자 마련된 온라인 축제, 소수집단 간담회, 총학생회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나서게 됐다. 이번 2차 장학금은 지난 1학기부터 이어온 「코로나19 극복 희망장학금」기부 모금액과 자체노력 예산절감,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장학금 등의 재원을 확보하여 마련됐다.



제32기 한성 온라인 앰버서더 성과 발표회 개최

본교 국제교류원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은 지난 12월 3일, 교내 상상관 505호에서 '제32기 한성 온라인 앰버서더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 발표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우수팀으로 선발된 2팀만을 초청해 시상식과 발표 녹화를 진행했다. 우수팀은 활동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느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발표했다.



성북구청과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

본교는 성북구청과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9월 18일,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성북구청과 성북구 소재 6개 대학(한성대,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서경대, 성신여대)이 체결한 협약으로 4차 산업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해 기획되었다. 본교는 성북구청과 벤처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VR/AR제작지원거점센터, 캠퍼스타운 등의 사업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9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 개최

본교 국제교류원은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일정으로 '온라인 제9회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주제는 '2020 나의 한국생활-코로나를 이기는 나의 유학생활, 함께 살아가는 한국 이야기, 한성이 좋다! 한국이 좋다, 나의 랜선 한국 여행기'였으며, 중국, 일본,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 11개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개인전 최우수상은 '코로나 이기는 나의 유학생활'을 발표한 마르던 팀(한국어교육트랙 18학번)에게 수여됐다. 우수상은 '두리안의 이야기'를 발표한 두리안 팀(한국어과정 소속)에게, 장려상은 '힘들지만 행복한 나의 유학생활'을 발표한 제옥영 팀(뷰티디자인학과 17학번)에게, 특별상은 '레나의 한국에서 살아남기'를 발표한 미스레나 팀(한국어과정 소속)에게 수여됐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한성인의 마음

본교는 지난 11월 2일(월) 성북구 삼선동주민센터에서 '삼선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지원금 3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 전달식에는 한성대 대외협력처 김효용 처장, 대외협력팀장을 비롯하여 삼선동 주민센터 은현기 동장, 보건복지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효용 대외협력처장은 "금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실시했던 선녀축제 등 지역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 지원금으로 마음을 함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창원 총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본교 이창원 총장이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를 지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환경미화직, 보건 의료직, 운전직, 보안직 등의 필수노동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창원 총장은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교내 이인영 환경미화원, 김혜란 교내식당 영양사, 정광모 보안업체직원, 김창수 운전직 종사자들과 함께 응원의 마음을 나누었다.

HANSUNG NEWS



이창원 총장,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 참석
 본교 이창원 총장이 지난 10월 30일 고려대학교 SK미래관에서 진행된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에 참석했다. 이번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2020」은 '제9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으며, 회원 대학 총장 및 부총장 33명,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상호 11번가(주)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여 캠퍼스타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기계자동화트랙 강상욱 교수,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서 '강월 논문상' 수상
 본교 기계자동화트랙의 강상욱 교수가 지난 11월 19일 제주 칼호텔에서 한국소음진동공학회로부터 '강월 논문상'을 수상했다. 본상은 1993년 제정된 상으로 소음·진동 공학 분야 발전에 크게 공헌한 학술논문 발표자를 선정하는 상이다. 강상욱 교수는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 피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전자트랙 재학생 6명,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IT창의챌린지' 입상
 본교 전자트랙 재학생 6명은 지난 11월 27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IT창의챌린지'에서 동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자트랙 배윤진(4학년) 선지민(2학년), 이종근(2학년) 학생은 '행복회로팀'으로 '어린이집 통학 차량 감지 시스템'을 개발하여 동상을 수상했고, 전자트랙 윤민영(3학년), 전혜진(3학년), 박준호(2학년) 학생은 '화이팀'으로 '화재 대피 경로 안내등'을 개발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최원석·정재훈 동문 중국 여성건강 프로젝트 '궁건강' 협약식 진행
 본교 최원석 동문(경영86(취)질경이 대표)과 정재훈 동문(무역92(취)아이도트 대표)이 중국 여성 건강 시장 공략을 위한 사업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월 24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질경이와 아이도트는 '중국 여성건강 프로젝트 궁건강'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질경이는 아이도트의 '서비레이 AI(Cerviray AI)'가 진출해 있는 중국 북경과 심천 지역 주요 거래처에 여성청결제 '질경이'를 공급하게 되면서 중국 여성건강을 위해 한국의 선진 의료 ICT 인공지능 솔루션과 국내 대표 여성청결제를 패키지 상품으로 선보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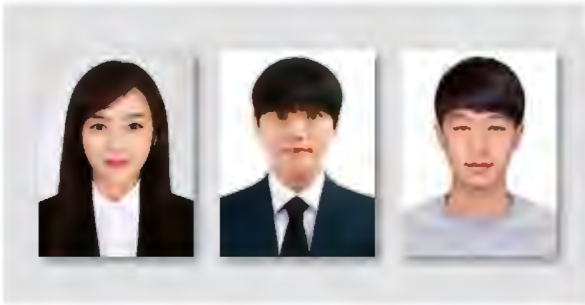
이창원 총장,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 참석
 본교 이창원 총장이 지난 10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했다. '영웅은 어디에나 있다(Hero, Everywhere)'를 주제로 열린 '제9회 이데일리 W페스타'는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의료, 경제, 정치 등 전 영역에 걸친 현실 무대 위에서 변화를 이끈 일상 속 영웅들의 삶과 여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기획되었다.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안영무 교수, 「강의전달력 향상을 위한 목소리 디자인」 저작권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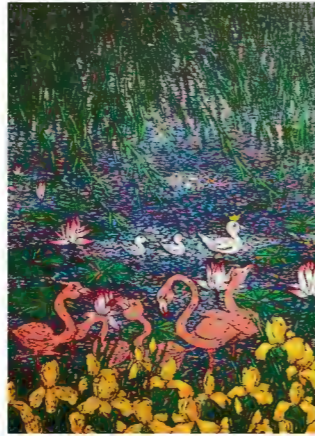
본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안영무 교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강의전달력 향상을 위한 목소리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1월 5일 저작권등록증(제C-2020-039410호)을 발부받았다. 안영무 교수는 10년 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첫 주부터 목이 쉬어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한 뒤 '어떻게 하면 목을 다치지 않으면서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하는 화두를 갖고 교수자를 위한 발성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HANSUNG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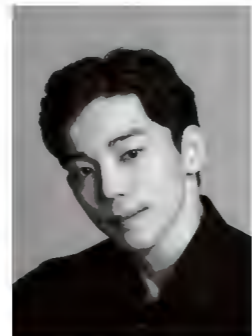
공인노무사 및 관세사 시험 최종 합격

본교 역사문화학부 10학번 남미지 동문이 2020년도 29회 공인노무사 시험에 최종합격자에 이름을 올렸고 한성대 고시반 학생 무역학과 12학번 권기혁 동문, 무역학과 13학번 김승수 학생은 2020년도 37회 관세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본교는 재학생 중 관세사·공무원·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임용고사 준비생을 대상으로 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 중 국가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할 경우 격려장학금(1차 합격 100만원, 최종합격 150만원)을 지급하며, 최종합격생에는 1학기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회화과 동문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의 개인전 '사는 이야기-for you'

본교 회화과를 졸업한 김용모 작가의 개인전 '사는 이야기-for you'가 서초동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위치한 유디 갤러리에서 지난 11월 11일 까지 개최됐다. 김용모 동문은 입체 예술인 조소를 회화에 접목시킨 독특한 표현기법으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며 이번 전시를 통해 그는 "평범한 일상과 삶의 소중함을 담은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희 동문 광주시립발레단원 코리아국제콩쿠르 동상

본교 무용과 이창희 동문이 13회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유명한 발레 인재들의 한국 방문을 유도하고 우리나라 유망 무용수들의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발레재단이 주최하고 있다. 이 동문은 "코로나로 모두 힘들게 연습하고 있는 가운데 수상 소식으로 좋은 분위기를 전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 역량을 더욱 발전시켜 시립발레단에 기여하는 무용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달했다.

이창원 총장 1200만원 '한성학원 창학 75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본교 이창원 총장이 지난 12월 2일, 발전기금 12,000,000원을 기부했다. 이창원 총장은 "2020년, 한성학원의 창학 75주년을 맞이하여 법인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홍승린 총무처장, 500만원 '한성학원 창학 75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본교 홍승린 총무처장이 지난 11월 20일, 발전기금 5,000,000원을 기부했다. 홍승린 처장은 "2020년, 한성학원 창학 75주년을 기념하며 한성학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주)아모스프로페셔널, 3,700만원 상당 뷰티제품 현물 기부

(주)아모스프로페셔널은 지난 11월 27일에 3,700만원 상당의 현물(뷰티제품)을 기부하였다. 노상철 대표는 "뷰티 예술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한성대학에 뜻 깊은 기부를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이번 기부가 예술대학원과 대학의 홍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문학부 장학재단, 500만원 한국어문학부 학생장학금 기부

한국어문학부 장학재단은, 지난 12월 1일 한국어문학부 학생장학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한국어문학부 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한국어문학부 학생들이 우리대학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명희 교육혁신원장, 500만원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장명희 교육혁신원장은 12월 7일,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장명희 원장은 "2022년, 우리대학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한성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한혜련 디자인아트교육원장, 1,000만원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한혜련 디자인아트교육원장은 지난 12월 3일,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한혜련 원장은 "2022년, 우리대학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한성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장명희 교육혁신원장, 500만원 '한성학원 창학 75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

장명희 교육혁신원장은 "2020년, 한성학원 창학 75주년을 기념하며 한성학원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종훈 이사장은 "기부해 주신 발전기금을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전경숙 교수, 5,000만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장학금 기부

본교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전경숙 교수는 지난 10월 19일,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장학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했다. 전경숙 교수는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들이 우리대학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효용 대외협력처장, 1,000만원 발전기금 기부

본교 김효용 대외협력처장은 지난 11월 12일,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김효용 처장은 "2022년, 우리대학의 개교 50주년을 기념하며 한성학원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밝혔다.



무용과 졸업생 최재현 동문, '궁중문화축전' 경희루 판타지-궁중연화 공연 진행

본교 무용과(97학번) 졸업생 (동 대학원 09학번 수료) 무사이 댄스컴퍼니 대표 최재현 동문이 안무가로서 '궁중문화축전'에서 경복궁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경희루를 배경으로 '경희루 판타지-궁중연화' 심청전을 선보였다. 최재현 안무가는 "이번 공연은 퓨전 창극이기 때문에 주요 배역들과 무용수들의 극적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소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확한 극적 타이밍 포인트 이미지를 적절히 꾸며 극내용의 성숙도를 한층 높이는 안무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한성의 5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한성대가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주시요.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은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창의융합 인재양성장학금으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개교50주년 기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성명(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기부인 / 약정인	대상 구분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학생성명: _____ 학과: _____ 입학년도: _____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과정 입학년도: _____ 대학(원): _____ 학부(과): _____ 전 공: _____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총장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소속: _____
		연락처	자택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직장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직장명 _____ 직 위 _____		
	E-mail _____ 핸드폰 _____		
우편물/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input type="checkbox"/> 영수증발급 희망		
기부(약정)액 기부 물 품	금 _____ 정 (₩ _____)		
발전기금 지정분야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개선 및 기자재 확충 <input type="checkbox"/>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기타지정(_____) ※ 학교발전기금 중 장학기금은 학생을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없습니다.		
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2021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2021년 _____ 월부터 20 _____ 년 _____ 월까지 (_____ 회) 분납	월납부액 _____ 원 입금자명 _____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기업은행: 114-1004-1004 예금주: 한성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 교직원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	<input type="checkbox"/> 은행명: _____ <input type="checkbox"/> 예금주: _____ <input type="checkbox"/> 계좌번호: _____ <input type="checkbox"/> 결제일: 매월 _____ 일 ※ CMS란, 기부자의 동의하에 기부자 계좌에서 한성대학교가 자동출금해가는 방식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우촌관 5층, 502호, TEL: 02-760-4255, FAX: 02-760-4274)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필수)	[기부 약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수집 및 이용목적: 기부금수납, 기부금 영수증발급, 기부자 예우 관리 등의 기부처리에 관한 업무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자택전화), 이메일, 주소, 학적정보, 직장정보, CMS정보 등 • 기부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세액공제, 기부자 예우 등의 혜택 수혜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법인세법 제122조 제2항의 의거함.		

위와 같이 개교 50주년 기념 발전기금으로 기부(약정)합니다.

2021년 _____ 월 _____ 일

기부(약정)인:

(날인/서명)

한성대학교 총장 귀하

2022학년도 한성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안내

2022학년도 모집인원 (정원내)

대학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정시모집 소계 (B)	합계 (A+B)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실기 위주	수능			실기 위주					
		교과	(I) (II)	특기 (뷰티)	한성인재		사회통합		가 군		나 군			다 군	
						(I) 고 른 기 회	(II) 평 생 학 습 자	가 군		나 군					다 군
예 문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	27	15		47	12					101	17		17	118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	19	15		18						52		15	15	67
	동양화										0			13	13
	서양화										0			13	13
	예술학부(주) 한국무용										8	8		2	2
	현대무용										6	6		2	2
	발레										8	8		2	2
사 회	사회과학부(주)	28	15		53	15					111	20		20	131
	사회과학부(야)	31	26		30						87		26	26	113
디 자 인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8	5		25	3					41	8		8	49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14	11		13						38		11	11	49
	ICT디자인학부(주)										72	72	4	4	76
	ICT디자인학부(야)										20	20		0	20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		3	2	5						10			0	10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		5	2	3						10			0	10
	컴퓨터공학부(주)														
공 과	기계전자공학부(주)	90	61		70	15					236	45		45	281
	IT융합공학부(주)														
	스마트경영공학부(주)														
	컴퓨터공학부(야)														
	기계전자공학부(야)	40	33		36						109		34	34	143
	IT융합공학부(야)														
	스마트경영공학부(야)														
미 래	상상력인재학부(주)	69	41								110	131		131	241
	상상력인재학부(야)	17	10								27	34		34	61
	융합행정학과(야)					7					7			0	7
	호텔외식경영학과(야)					7					7			0	7
	뷰티디자인학과(야)					7					7			0	7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10					10			0	10
	ICT융합디자인학과(야)					8					8			0	8
합 계	343	240	4	300	45	39	114	1,085	90	165	90	32	377	1,462	

※ 주요사항중 일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세부사항등은 추후 발표되는 수시/ 정시모집요강을 반드시 참조바랍니다.

2022학년도 모집인원 (정원외)

대학	모집단위	수시모집					기타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예 문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주간]10명 [야간]4명					
	소 계	14명					
	동양화						
	서양화						
	예술학부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소 계	14명						
사 회	사회과학부	[주간]10명 [야간]6명	[주간]5명 [야간]2명				
	소 계	16명	7명				
디 자 인	ICT디자인학부			[주간]4명	[주간]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주간]4명 [야간]1명	[주간]2명 [야간]1명				[주간]19명 [야간]10명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주간]1명 [야간]1명				
	소 계	5명	5명	4명	2명		
공 과	컴퓨터공학부						
	기계전자공학부	[주간]10명 [야간]9명	[주간]4명 [야간]3명				
	IT융합공학부						
	스마트경영공학부						
소 계	19명	7명					
미 래	융합행정학과(야)			[야간] 11명			
	호텔외식경영학과(야)			[야간] 18명			
	뷰티디자인학과(야)			[야간] 18명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야간] 15명			
	ICT융합디자인학과(야)			[야간] 18명			
소 계			80명				
합 계	54명	19명	80명	4명	2명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계열	반영방법	반영교과	최저학력기준
수시	학생부 교과	(I)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사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공과대학		국/영/수/과	
			상상력인재학부		국/영/수/사 or 과	
	(II)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사	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공과대학		국/영/수/과		
		상상력인재학부		국/영/수/사 or 과		
	특기(뷰티)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생부(교과) 100%	국/영/수/사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공과대학	서류평가 100%		
		(I) 고른기회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공과대학			
			융합행정학과(야), 호텔외식경영학과(야), 뷰티디자인학과(야),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ICT융합디자인학과(야)			
(II) 평생 학습자		뷰티디자인학과(야), 비즈니스컨설팅학과(야), ICT융합디자인학과(야)				
농어촌학생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공과대학				
특성화고교 졸업자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공과대학				
실기 위주	실기	예술학부(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기고사 80% + 학생부(교과) 20%	국/영/수/사		
		ICT디자인학부				
정시	수능 위주	가군	수능 100%			
		나군				
실기 위주	실기 위주	다군	실기고사 60% + 학생부(교과) 40%	전교과		
		가군				



한개의 미래로는 성에 차지 않으니까!

2개의 트랙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다양한 전공만큼 다양한 가능성이 한성인을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키웁니다.
한성대학교는 세상과의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100년의 미래를 이끌어 갑니다.

